세월호 8주기, 추모의 노란 물결

진도 팽목세월호기억관 앞 기억식
광주 5·18민주광장 시민 분향소
4·16재단 '온라인 기억관' 등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진도항)에서 추모객이 방파제를 걸으며 희생자를 추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행사가 열린다.

주말인 16일 진도 팽목세월호기억관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매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주기에 맞춰 진행되는 기억식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하는 자리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16분까지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진도대책위 등이 주관한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목포공동실천회의 등이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전남영재드림오케스트라와 진도국악고 학생들이 나서 추모 공연을 선보인다.

광양에서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추모행사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 광양시민 추모위원회는 이날 서천변 잔디밭에 바람개비로 416글자를 만들며 시민들과 참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족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16일 참사 해역인 진도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선상 추모식을 갖는다.

목포해경 경비함을 타고 참사해역으로 이동해 헌화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참사해역을 몇 바퀴 선회한 뒤 당일 오후 목포해경부두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광주에서는 각 자치구, 시민단체, 마을 모임 주관의 추모행사가 예정돼 있다.

16일 오전 10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주관으로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진행된다. 희생자를 위한 묵념, 청소년들의 발언, 문화행사 등이 준비됐다. 시민상주모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같은 장소에서 시민 분향소를 열고 추모객을 받는다.

동구는 16일 오후 2시부터 5·18 광장에서 청소년 기억문화제를 열고 서구는 하루 앞선 15일 오후 7시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기억문화제를 연다. 남구는 15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백운광장 내 세월호 조형물 앞 공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북구 역시 같은 날 오후 구청사 앞 광장에서 기억문화제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16일 오후 수완 풍영정천 천변공원 인근 세월호 기억공간 '소풍'에서 추모행사를 연다. 거리공연, 시민참여 기억식 등이 준비됐다.

온라인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4·16재단은 비대면 추모공간인 '온라인 기억관'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 기억관'은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즉시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제1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을 열고, 학생회 주관의 SNS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교육 자료 등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계기수업을 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미세먼지 줄었다…계절관리제 효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발표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중 광주·전남 초미세먼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광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0㎍/㎥을 기록 전국 평균 23.3㎍/㎥보다는 낮고, 최근 3년 평균(25.8㎍/㎥) 보다는 2.8㎍/㎥ 감소, 좋음일수는 41일간으로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대비 9일 증가했다.

전남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0㎍/㎥을 기록 전국 평균 23.3㎍/㎥보다는 낮고, 최근 3년 평균(25.8㎍/㎥) 보다는 2.8㎍/㎥ 감소했다. 좋음일수가 61일간으로 1차 대비 13일 많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 백아산 전사자 추정 유해 발굴

제31보병사단

화순 백아산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한 구가 발굴됐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4일 "비호여단 충의대대 장병들과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구성된 유해발굴팀이 최근 화순 백아산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한 구를 발굴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유해발굴팀은 발굴 현장에서 탄피 등 군용품이 발견된 점에 미뤄 6·25 당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나 2개월 여 정밀 감식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유해발굴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화순 백아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펼쳤다. 유해발굴팀은 발굴 현장에서 약식 제례를 한 뒤 충의대대 주둔지에 설치된 임시 봉안소에서 최순건 사단장 주관으로 봉안식을 치렀다. 유해발굴팀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복토(覆土) 작업 등을 거쳐 유해발굴지역을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농기계 사고 '주의보'

5년간 1020건·882명 사상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연평균 농기계 사고로 1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농기계 사고는 200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156명에 달했다. 농기계 사고가 집중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020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86명이 숨지고 79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9건의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22명이 부상했다. 2017년 193건(사망 8명·부상 184명) → 2018년 181건 (사망 22명·부상 144명) →2019년 177건(사망 23명·부상 137명)으로 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인명피해는 들쭉날쭉했다. 2020년에는 210건의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10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020년 사고를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이 32.8%(69건)로 가장 많았다.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사고가 25.2%(53건), 기타·미상의 원인 24%(52건), 교통사고 11.4%(24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회전체 작업 등을 할 때 헐렁한 복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기계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설비나 장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농기계의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른 새벽이나 저녁 작업은 삼가라고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스트 연구진, 삼성전자로부터 27억 지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명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총 2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스트는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최영재(34·왼쪽) 교수와 물리·광과학과 이상윤(47·오른쪽) 교수 연구팀이 최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에서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1조5000억원을 출연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공익 연구 지원사업의 하나다.

최 교수는 15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3년간 주식회사 에이티지라이프텍과 함께 리보핵산(RNA) 백신·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분자 정제 기술 연구를 한다. RNA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바이오 소재로, 그동안 생산 단계에서 소재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그는 "mRNA 백신, RNA 신약의 높은 기능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NA 정제 수율을 높이는 분자 정제 기술이 필요하다"며 "5년 안에 현재 70%에 미치지 못하는 RNA 정제 수율을 99% 수준으로 끌어올려 K-바이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윤 교수는 올해부터 3년간 12억원을 지원받아 반도체를 이용한 양자중계기 관련 연구를 한다.

이상윤 교수는 "반도체를 이용한 양자 중계기 성능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실용적인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 실현 가능성을 한층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